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

| 박상우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승영<주인공. ○○ 공사에 하반기 공채로 입사했다. 입사 축하기념으로 모인 술자리에서 과거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한다.> **기훈, 용석**<승영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죽마고우. 셋 중 가장 늦게 취업한 승영을 축하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술자리를 마련한다.> **아주머니**<딸이 좋아하는 과메기를 냉동포장하여 택배로 부치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한다. 하지만, 승영의 실수로 인해서 택배의 내용물이 상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편의점 점장**<승영이 일하는 편의점의 점장. 승영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시놉시스

“누구나 양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 근데 이상하게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은 부정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험난해 보이거든.”

꿈에 그렸던 ○○ 공사에 합격한 '승영'.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술자리에서 승영의 친구 기훈, 혜진은 공사에 합격한 비결을 물어본다.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작은 양심부터 지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대답하며 과거의 일화를 이야기하는 승영.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승영은 상할 수도 있는 냉장식품 택배를 접수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냥 내버려두자. 도착할 때 상했다고 하더라도, 택배사 탓을 하겠지, 우리 편의점 탓을 하겠어?' 하지만, 승영은 이내 양심을 지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점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한 승영은 솔직하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아주머니의 대답에 감동을 받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갈림길 중에서 양심을 지키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

장면은 다시 세 친구의 술자리로 돌아오고, 세 친구가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양심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곱씹으며 극이 끝난다.

#0. 어느 가을날 저녁, 삼겹살집 안

왁자지껄한 식당 속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세 친구는 모두 멋진 양복을 빼입고 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끝나고, 취업에 성공한 승영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축하파티인 듯 하다. 용석은 능숙한 솜씨로 삼겹살을 자르고 있다.

용석 : (고기를 자르며) 야 A, 축하한다. 너 이번에 ○○ 공사 최종합격했다며?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게 공기업 취업이라던데, 도대체 어떻게 뚫은 거냐?

기훈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야. 우리 중에서 취업은 가장 늦게 했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곳으로 갔네. 도대체 비결이 뭐냐? 면접에서 뭐 물어보디?

승영 : (겸연쩍게 웃으며) 면접? 하도 긴장해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뭐 물어봤더라? (뭔가 생각났다는 듯 박수를 치며) 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한 본인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라고 질문 들어온 게 있었던 것 같다.

기훈 : (의아하다는 듯) 아, 공기업은 면접에서 그런 것도 물어봐? 난 그런 질문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용석 : 최근에 공공기관이든 은행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부정부패가 엄청 터져나오고 있잖아. ●●은행도 최근에 수십억을 직원이 횡령했던 것도 터졌고, ◇◇ 공기업도 불공정채용 문제로 최근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었나? (고기를 뒤집으며) 이야~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똑똑한 사람들 뽑아놨더니 실상은 횡령이니, 청탁이니 그러고 있으니 아예 면접단계에서부터 인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거겠지.

기훈 : (친구들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그래? 그래서 승영이, 넌 면접에서 넌 뭐라고 대답했는데?

승영 : 용석이가 말한대로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기는 하지. 그래도 난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나쁜 목적을 갖고 입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마 작은 비리부터 조금씩 저지르면서, 부정부패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큰 횡령이나 비리를 저지르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면접 때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작은 양심부터 지키는 청렴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던 것 같은데?

용석 : 오~ 뭔가 있어 보이는데 ~ 그래서 너가 청렴을 실천한 경험은 있어?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승영 : (미소를 지으면서) 아 옛날에 말이지..

장면은 수년 전 승영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으로 바뀐다.

장면은 수년 전 승영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으로 바뀐다.

#1. 무더운 8월의 여름날 오후, 편의점 카운터 앞

(편의점 카운터 앞으로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승영 : (바코드 찍는 소리가 울리며) 네, 5,800원입니다.

손님1 : (손님이 카드를 건네며) 여기요.

승영 : 혹시 할인이거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손님1 : 아뇨, 없어요.

승영 : (상품을 비닐에 담으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다음 손님이 다가온다.

손님2 : 히말라야 한 갑 주세요.

승영 : 신분증 한 번만 확인할게요. (손님이 건넨 신분증을 확인한 뒤) 네, 4,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승영 : (속마음으로 불평하며) 아니,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손님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오는거야? 할 일이 넘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네.

#2. 편의점 입구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무거워보이는 상자를 양손에 든 채로 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편의점에 들어온다.

아주머니 :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들어보이며) 안녕하세요, 이거 택배 좀 부치려고 하는데 기계를 어떻게 쓰는건지 몰라서요.

학생, 혹시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승영 : (다른 손님의 상품을 계산하며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손님들 계산 먼저 도와드리고 나서 도와드릴게요. (상품을 비닐에 담으며) 네, 10,2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잠시 후)

#3. 택배 키오스크 앞

승영 : (아주머니께 다가가면서, 여전히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택배 접수 도와드릴게요. 우선 여기 저울에 택배 올려주시면 되세요.

(무게 계량이 끝나고, 키오스크의 화면이 착수신인 정보입력란으로 바뀐다)

승영 : 이제 여기 보이시는 칸에 보내시는분, 받으시는분 정보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주머니 :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완전히 컴맹이라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거든요. 학생, 혹시 대신 좀 해 줄 수 있어요? (쪽지를 건네며) 받는 사람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요.

승영 : 아, 네네. (주소를 입력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아주머니 : (큰 미소를 띠면서) 이거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청어 과메기예요. 이번에 취직이 돼서 경기도로 갔거든. 집에 있을 때는 맨날 해줘서 지겹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름이라 구하기도 힘들고, 못먹으니까 그리워졌나 봐요. 전화가 와서 먹고 싶다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생난리를 피워대더라고요. 지금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가 몰라 호호.

승영 : (속마음으로)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은 똑같구나. 자식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더운 날에도 저렇게 무거운 택배를 들고 오면서도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실 수 있구나.

순간, 승영에게 아주머니의 얼굴이 승영의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좀 전까지의 통명스러웠던 태도가 후회되기 시작하는 승영이었다.

승영 : (이전보다 훨씬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아 진짜요? 저도 과메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따님께서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소 입력은 완료되었고, 카운터에서 접수 도와드릴게요.

#4. 카운터 앞

승영은 바코드를 찍고 택배를 접수한다.

승영 : 네, 접수 완료되었고 결제 도와드릴게요. 4,500원입니다.

아주머니 : (신용카드를 내밀며) 학생, 그런데 오늘 택배 보내면 언제쯤 도착하는 거예요?

승영은 송장을 택배상자에 붙이면서 대답한다.

승영 : (확실하지는 않다는 듯 미간을 다소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는 택배사 사정에 따라 달라서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택배 접수하고, 그 다음날에 기사님께서 수거해가면 보통 짧게는 이틀에서 길면 나흘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 : (걱정된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아 그래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냉동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상하지는 않겠지 뭐~. 학생,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승영 :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승영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5. 유제품 진열대 앞

승영은 그날따라 유독 많았던 손님 때문에 미뤄두었던 재고정리를 시작한다. 우선, 선입선출을 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식품들을 앞열에 배치한다. 그리고, 그 뒤로 오후에 도착한 물류를 차곡차곡 정리한다.

#6. 쓰레기통 앞

승영은 가득찬 쓰레기통을 꺼내서 분리수거를 시작한다. 분리수거를 끝내고 난 후, 쓰레기봉투들을 다시 100L 종량제봉투에 집어넣는다. 쓰레기봉투가 빠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의 입구를 테이프로 막고, 가까운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쓰레기장에 도착한 승영은 종량제봉투를 쓰레기 더미 위에 올린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온다.

#7. 다시 편의점 카운터 앞

시간이 흘러,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해야할 일들을 대강 끝마친 승영이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 불안감들을 뒤로 한 채, 승영은 잠깐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켜다. 휴대폰을 키고, 대기화면에서 오늘 날짜를 본 승영은 불안감의 정체를 깨닫는다.

승영 : (속마음으로) 큰일 났다!

승영은 오늘이 토요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8. 과거 회상, 편의점 택배 키오스크 앞

승영은 편의점 점장에게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고 있다. 점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택배 키오스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점장 : (중요하다는 듯 강조하며) 이건 꼭 명심해. 토요일에는 절대 냉장식품 택배를 접수하면 안 된다.

승영 : (궁금하다는 듯이)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점장 : 택배기사님께서 일요일에는 택배를 수거를 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토요일에 냉장식품 택배를 접수하면 어떻

게 되겠어? 여기서 월요일까지 택배를 보관했다가 수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안에 든 내용물이 상하겠지?

승영은 수첩에 내용을 받아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승영 : (수첩에 지시사항을 받아적으면서)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9. 과거회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편의점 카운터

당황한 승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채를 부여잡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승영 : (속마음으로) 어떡하지? 빨리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승영은 택배함 쪽으로 다가간다.

승영 : (아까 접수한 택배용지를 살펴보며 속마음으로) 역시나. 송장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손님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네. 이러면 손님에게 다시 연락드리려면 택배사로 전화를 해서 고객정보를 요청해야 하나?

순간 승영은 아주머니가 냉동포장을 했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린다.

승영 : (속마음으로) 그래, 솔직히 냉동포장 되어 있는데 하루이틀정도 더 늦게 도착한다고 상품이 상하기야 하겠어? (마음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내버려두자. 배송일은 택배사 사정 따라서 하루이틀 더 걸릴 수도 있는거고. 혹시 도착할 때 상했다고 하더라도, 택배사 탓을 하겠지, 우리 편의점 탓을 하겠어?

뭇난 생각들이 떠오르며 승영의 실수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승영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져 간다. 순간, 과메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딸과, 그 모습을 상상하며 환하게 웃고 있을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승영의 어머니 얼굴로 바뀌어 간다. 예의바르고 정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들을 자랑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승영 : (속마음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자고 맹세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적어도 정직하게, 남들을 속이지는 말고 살아오자고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혼자서 해결 못해서 양심을 팔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승영은 마음을 굳힌 듯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선다.

#10. 편의점 밖

승영은 휴대전화로 점장에게 전화를 건다.

(따르릉~ 따르릉~, 점장이 전화를 받는다)

점장 : (휴대전화 너머로) 어, 승영아, 무슨일이야?

승영 :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아, 점장님. 주말에 쉬시는데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르게 아니고, 실수로 토요일인데 냉장식품 택배 접수를 받아버렸어요. 고객님께 전화를 해서 환불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송장에 고객님 개인정보가 안나와있더라고요. 택배사에 전화해서 고객님 연락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택배사 전화번호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점장 : (너털웃음을 지으며) 아, 뭐야, 그런거였어?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다? 잠깐 기다려봐. 그거 일개 알바생인 너가 전화한다고 쉽게 개인정보 주지는 않을거야. 일단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너한테 연락을 줄게.

승영 : (다행이라는 목소리로) 정말요? 하,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일에 집중이 안됐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님.

점장 : 걱정 안해도 돼. 조금 있다가 연락 줄게. 고생해~

승영 : (안도한 목소리로) 네, 들어가세요.

다시 안으로 들어온 승영은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한다.

#11. 청소가 끝난 후, 다시 편의점 카운터

승영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점장에게서 온 전화인 듯 하다.

(따르릉~ 따르릉~)

승영 : (긴장된 목소리로) 네 점장님, 어떻게 되었나요?

점장 : 잘 처리됐어. 손님분 연락처 받아서 내가 연락드렸고, 곧 택배 회수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오시면 택배 환불 해드리면 돼. 아, 그리고 손님께 사과 드리는거 절대 잊지 말고.

점장 : (전화를 끊으려다가 할말이 생각났다는 듯) 아 맞다. 그리고 실수한 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원래 알바들은 이런 실수가 생겨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나중에 조사해보면 누가 실수한 건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실수들을 알바한테 질책하면 대부분은 금방 그만뒀 버리더라고. 솔직히 내 입장에서 새로 알바 뽑고 교육 시키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 그런데, 너처럼 이렇게 실수한 걸 솔직하게 말해주니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꼭 연락해.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알바들이 실수하면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게.

승영 : (안도한 목소리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점장님. 손님 오셔서 일 마무리 되면 다시 연락 드릴게요.

#12. 조금 후, 같은 장소

택배를 접수하셨던 아주머니가 편의점으로 걸어오고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승영은 괜스레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아주머니 : (땀을 닦으면서) 안녕하세요, 예휴, 이놈의 날씨는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덥네요.

승영 : (긴장한 듯) 어서오세요. 택배 접수 취소하러 오셨죠? 정말 죄송해요. 원래 토요일엔 냉장식품 택배 접수 받으면 안되는 건데, 실수로 제가 손님 택배접수를 받아버렸지 뭐예요. 덕분에 손님을 두 번 발걸음 하게 만들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 (손사래를 치며) 아유,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도 다시 얘기해준 덕분에 상한 과메기가 딸한테 가게 될 일은 없었잖아. 택배야 다시 냉동보관 했다가 나중에 또 보내면 되는 거고요.

승영 : (커피를 건네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너무 죄송해서 이거라도 받아주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 : (웃으며) 사실 처음에 택배 접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전화 받았을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났죠. 이 더운날에 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와서 가져가라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학생 얼굴을 생각해보니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다시 얘기해줬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커피를 비운 후,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주머니. 택배상자는 여전히 무거워 보인다. 승영은 재빨리 문을 열어 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한다. A의 가슴 속에서는 희미하지만 한 줄기의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13. 과거 회상 끝. 다시 삼겹살 집

다시 장면은 세 친구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삼겹살 집으로 이동한다. 승영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삼겹살이 다 익어 있었다. 용석은 친구들에게 다 구운 고기를 나눠준다.

용석 : (고기를 나눠주며, 재미있다는 듯) 너 옛날에 거기서 알바했을 때 나도 몇 번 갔었잖아. 갈 때마다 하는 것도 없이 시간만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 재밌네. 그럼, 그 일화가 면접에서 유효타로 먹었던 건가?

기훈 : (삼겹살을 우물거리며) 야, 근데 솔직히 그건 오바 아니냐. 니 얘기대로라면 그냥 너가 실수해놓고 책임지기는 싫어서 이리저리 짱구 굴리다가, 결국 원래 해야 했던 조치를 취한 것 뿐이잖아. 솔직히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용석 : (기훈의 등짝을 때리면서) 어허~ 우리 ○○ 공사에 합격하신 승영님에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승영 : (꺄꺄 웃으면서) 근데 사실 기훈이 말이 맞긴 해. 내가 좀 소심하잖아.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솔직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따지고 보면, 내 실수 하나 때문에 대체 몇 명이나 번거롭게 만든 거겠어?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냥 '민폐 썰'을 보기 좋게 포장한 걸로 밖에 안보이는게 당연하지.

승영은 말을 잠시 멈추고 술을 한잔 들이킨다.

승영 : 그래도 난 그 일 겪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누구나 양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 근데 이상하게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은 부정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험난해 보이거든. 그런데, 갈림길 중에서 양심을 지키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 비록 내 실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편한 길을 포기하고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해. 그것만으로도 내겐 값진 경험이었어.

용석 : 그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내딛는 그 작은 용기에서부터 청렴이 시작된다는 이 말이지?

어때 기훈, 이제 알겠어?

기훈 : (손사래를 치며) 알았어, 알았어. 하여튼, 니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죄지은 기분이 되는 것 같다니까. (술잔을 높이 치켜드며) 그래, 그럼 이번에 취업한 승영이를 위해 거국적으로 건배 한번 할까? 건배사는 승영이가 하는 걸로 하자!

승영 : (당황하며) 뭐야 그게. 나 이런거 멍석 깔아주면 진짜 못하는 스타일인데.

(잠시 고민하며) 자, 그럼 '청렴'으로 2행시 해보겠습니다.

기훈, 용석 : 청!

승영 : 청년들이여,

기훈, 용석 : 령!

승영 : 염치없이 살지는 말자.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건 이제 우리들이다!

용석 : (질색하며) 와, 진짜 더럽게 못하긴 하네. 저저 억지로 끼워맞춘거 봐봐.

기훈 : 됐어. 빨리 먹거나 하자. 야, 근데 술값은 승영이가 내는거 맞지? 너가 취업해서 모인거잖아.

승영 : 아니, 이제 갓 취업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소식 듣고 너네가 축하파티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용석 : 무슨 소리아? 취뽀한 놈이 한턱 내는거지.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 떠드는 세 친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막이 끝난다.